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가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 21면에서 계속

래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앙당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말없이 그냥 움죽거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 있게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죠.

그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 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안 되겠습니까?

불교에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들어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라고, 귀신들이 들끓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 불교 속에 들어 있다." 하고선 그냥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불교 속에 들어 있다." 이러고는 그냥 "당신네들도 기복이야, 전부 기복이야. 여기 이쪽이 귀신이고 그런다면 너희들도 귀신이다, 그 마음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불교가 그렇다고 해서 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럭하고 있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이든가 친구들이든가 죽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그것이 둘이 아니게끔 거기다가 모두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뭐, 쇠 부스러기가 그냥 붙어서 하나가 돼 버리는데, 그냥 자석에 한 덩어리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탈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 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떼어 버리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붙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떼어 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떼어 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떼어 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럭하고 만날 떼어 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하하하.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놔라. 거기다 놓으면,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 버린다. 불덩어리에다가 그냥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 버린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 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 난다. 이사를 가고 오고 삼재가 들고 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그런 거를 일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하하하.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산다고 하고 살 겁니까? 만날 고통이지!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미련하면 무조건 거기다 놓으라면 그냥 무조건 놓으니까. 그런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라는 이름도,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요, 종교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다 이름입니다. 그건 다 이름일 뿐이에요. 나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항상 그런 말 잘하죠. 저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치고 온통 그냥 혼란을 부리고…, 이게, 이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수라장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통, 즉 본다, 듣는다, 남의 마음을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가고 옴이 없이도 가고 오고 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싹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싹 벗어나서, 아예 다 내려다보고 다 그냥 모두가 그저 사대(四大)를 다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래니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하다면 중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한 게 여러분과 나와 둘 아니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천장에 전구가 쭈욱 이렇게 있죠? 너 나가 모습은 다 이렇게 달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만날 하죠? 그러니까 둘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요,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 나가면서 믿어 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낸다 이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의리도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 의리로 봐도 그렇고 도의로 봐도 그렇고 아, 어떻게 그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켜 놓고, 촛불 하나 켜 놓고, 물 하나 떠 놓고 생수 떠놓고, 참 떡 한 조각이라도, 그 찹쌀떡이라도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그 길러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둘 아닌 자리에 함께하소서.' 하고 그냥 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오늘 어르신네 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 사 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 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해도, 불을 켜 놓고…. 그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 그렇게 해 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하하하, 바꿔진 거뿐이니까.

아이,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지낼 때 지게를 지고 가니까 "왜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길래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가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럽니다. 이거 모르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밉게 생각을 한다, 저것 증오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둘이 아닌데 너도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도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그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해 보십시오.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내 몸과 자식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질문자1(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몇십 년을 신봉하다가 스님의 "우리 믿음은 과학적이다." 이런 데에 매료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간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설법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과의 구별이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설법에서도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인공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의 '님'입니다.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 하나의 자기부터 세워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지팡이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의에 있다고 생각하고들 찾는 것은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예수도 '나를 믿어라' 이랬지 언제 '타의의 모든 것을 믿어라' 이랬습니까? 나를 믿으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은 '모두 각자 나를 믿어라' 했던 건데, 모두 모르고 '자기를 믿어라' 이러니까 모두 한군데로 몰려서 '예수를 믿으랬다' 이렇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고쳐 나가면서 이루어야 우리 지구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찾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요? 또한 아울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이, 여직껏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거, 나는 아주 그 이름 자체도 없애고 싶다고요. 관(觀)이지! 자기를 자기가 관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신심이 돈구어진다 이러는 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익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도다. 이게 누진(漏盡)이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
>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